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문화를 만듭니다

쉽고 바른 우리말, 서로를 존중하는 말하기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어려운 외래어와 거친 표현은 누군가에게 소통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따뜻한 말을 선택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 습관을 함께 바꿔 봐요!

01 외래어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상대방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 컨펌 ’ 은 ‘ 확인 ’ , ‘ 어레인지 ’ 는 ‘ 정리 · 조정 ’ , ‘ 리마인드 ’ 는 ‘ 다시 알림 ’ 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외국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전달이 더 정확해집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더 쉬운 표현은 없을까요?

뜻이 분명한 말을 사용해요

줄임말과 유행어도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친한 친구끼리는 줄임말이 편할 수 있지만, 수업 · 공지 ·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듣는 사람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장난이어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비난 · 욕설 대신 감정과 의견을 차분하게 표현해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 그 말은 불편해요 ’ , ‘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 처럼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 보세요. 농담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기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말은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학교와 SNS에서 바른 언어 사용을 시작해요.

①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② 욕설과 비하 표현 사용하지 않기 ③ 온라인 댓글에도 예의 지키기 ④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기 ⑤ 잘못된 표현을 발견하면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알려 주기. 나부터 실천하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이 퍼집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바른 언어 습관!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말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고, 바르게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말은 쉽게, 거친 말은 따뜻하게 바꾸어 봅시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학교 언어문화를 만듭니다.

오늘 내가 먼저, 바른 말 한마디!